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BONE TALK

가제 : 본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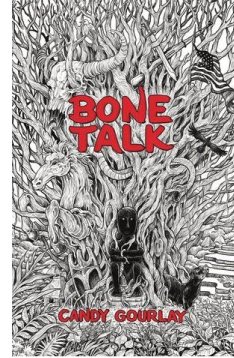
저자 : Candy Gourlay

출판사: David Fickling Books

발행일: 2018년 8월 2일

분량 : 252 페이지

장르 : 문학



*** “살고 있는 문화권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꼭 맞는 성장 소설” - 미국 출판사 Scholastic
의 서평**

1899년, 필리핀 본특 지역의 울창한 숲 속에서 대대로 살아온 한 부족에 샘카드라는 소년이 살고 있다. ‘꼬마 루키’라 불리는 말괄량이 소녀와 하루 종일 마을 곳곳을 쏘다니면서 장난을 즐기던 샘카드에게 어느 날 말로만 듣던 ‘자르는 날’이 다가온다. 부족의 남자라면 마을 원로들이 정한 어느 날 반드시 그 ‘자르는 날’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을 거친 소년은 어엿한 어른으로 인정 받는다. 그런데 설렘과 두려움을 느끼며 이 중대한 단계를 준비하던 샘카드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젓먹이 어린 시절에 헤어진, 친구이자 형제나 다름 없는 킨요가 나타난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신하던 샘카드는 킨요가 전하는 마을 바깥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는다. ‘미국인’이라 불리는 외지 사람들, 그들이 일으킨 변화와 불길한 징조에 마을 전체가 동요하고, 샘카드는 다른 전사들과 함께 어쩌면 모든 것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그 낯선 이방인과의 싸움을 준비한다.

샘카드의 부족에서 남자가 된다는 건 자신만의 방패와 창, 도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자들의 집’에 머물 수 있고, 곧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뜻이기도 했다. 평소와 다름 없이 꼬마 루키와 나무에 걸린 들소 얼굴 뼈에 돌 던지기 놀이에 한창이던 날, 마을 원로들의 호출을 받고도 샘카드는 그저 며칠 전에 했던 장난이 들킨 것 같다고만 생각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피도 할아버지의 발치에 죽은 뱀을 갖다 놓고 뒤에서 진짜 뱀처럼 효과음까지 내서 할아버지가 질겁하게 만든 것이다. 며칠 뒤에 할아버지의 영혼은 하늘의 부름을 받고 영원히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 덜덜 떨면서도 내심 씩씩한 발걸음으로 회의장에 성큼성큼 들어선 샘카드는 아버지가 왜 일인지 잔뜩 긴장한 모습과 잇몸까지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원로들의 얼굴을 보며 의아해한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남자가 될 때가!” 원로 대표가 선언하자, 모두 샘카드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넸다. 단 한 사람, 뒤따라온 꼬마 루키만 할 말을 잃고 낮

게 비명을 질렀다. 얼마 전, 샘카드의 친구 탐볼도 ‘자르는 날’을 거쳐 남자가 되었다. 샘카드는 그 의식을 끝낸 탐볼이 3일 정도 집안에만 갇혀서 끄끙 앓는 소리를 모두 들었고, 마침내 다시 집밖으로 나온 뒤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잘생긴 전사로 거듭나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이제 샘카드에게도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바뀌게 될, 중요한 날이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큰 일을 준비할 때면 샘카드의 부족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다. 키우던 닭을 한 마리 죽여서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신성한 나무 앞에 닭을 제물로 바치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다. 샘카드의 ‘자르는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샘카드는 아버지와 함께 죽은 닭을 들고 나무로 향한다. 그런데 울창한 숲 속에서 두 사람은 낮선 새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이것이 불길한 미래를 예견하는 징조임을 알아챈 아버지는 사색이 된다. 샘카드의 성인식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일까? 서둘러 원로들을 찾아간 아버지는 숲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신통한 예지력을 가진 부족의 원로들은 무슨 일인지 알아내기 위해 깊은 명상에 잠긴다. 그리고 뜻밖의 결과를 내놓는다. 아주 오래 전, 샘카드와 거의 한 날 한 시에 태어났지만 마을에서 떠나 보낸 아이, 킨요가 마을에 돌아와야 샘카드가 성인식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샘카드의 엄마 우다와 킨요의 엄마 시파는 마을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절친한 친구였다. 어린 소녀 시절부터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뒤편 함께 하던 두 사람은 커서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린 뒤에도 여전히 모든 일상을 함께 했다. 물 길으러 갈 때도, 사냥 간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할 때도 우다와 시파는 늘 나란히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일을 했다. 임신까지 비슷한 시기에 하고 배도 비슷하게 불러오자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놀라워했다. 그런데 아이가 별탈 없이 태어나게 해달라는 소망을 나무에게 빌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 문제였다. 사실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살면서 큰 불행을 겪은 적 없는 우다와 시파는 기도하지 않아도 별 일이 없을 거라고 자만했다. 결국 산달이 다 되어서야 산으로 떠난 두 친구는 가누기도 힘든 몸에 먼 길을 가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정해진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 앞에 닭을 놓고 기도를 드렸다. 그 일 때문이었을까. 두 사람은 같은 날 출산을 했고, 똑같이 아들을 낳은 뒤 바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엄마 잃은 두 아기에게 젖을 먹여줄 사람이 부족했던 마을에서는 시파의 아들, 킨요를 도시로 떠난 시파의 여동생에게로 보냈다. 그런데 그 킨요가 마을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바깥 세상을 잘 아는 킨요의 등장과 그가 전한 미국인들의 이야기에 마을 전체는 불안에 휩싸인다. 전쟁을 일으켜 부족 전체를 없애려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용맹한 부족민들과 목숨을 건 싸움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독특한 원시부족의 문화와 어우러진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캔디 골레이(Candy Gourlay)는 저널리스트로 일하다가 작가가 되었다. 아동 소설 『SHINE』은 2014년 가디언 어린이 소설상 후보에 오르고 ‘유럽 크리스털 카이트 상(Crystal Kite Prize for Europe)’을 수상했다. 데뷔 소설 『TALL STORY』도 2011년에 동일한 상을 수상하고 카네기 메달 후보, 블루 피터 상 등 13개 상 결승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COLOUR OF THE SUN

가제 : 태양의 빛깔

저자 : David Almond

출판사: Hodder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8년 5월 3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문학/가족



★ “아이와 어른, 존재하는 것과 보이는 것,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미세한 공간을 탐구하는 이야기” - 「가디언」

★ “소년 시절이 끝나고 남자로 변하는 시기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이 담긴 책. 시적이고 초월적인 이야기를 풍성한 방언으로 들을 수 있다.” - 「선데이 타임스」, ‘이주의 아동도서’ 선정 서평

유난히 햇살이 환하게 비추던 어느 여름 날 아침, 데이비는 얼른 일어나라는 엄마 목소리에 잠이 깬다. 2층 작은 방안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하고, 겨우 정신을 차린 데이비는 옷장에 걸린 동물가면을 가만히 살펴본다. 어릴 적, 그 가면을 쓰고 엄마아빠를 놀라게 하던 날들이 머릿속을 흐르고 데이비는 가장 좋아했던 여우 가면을 다시 한 번 써본다. 또 눈에 띄는 작은 천 가방과 스케치북, 그리고 네다섯 살 때부터 쓰던 색연필들. 아빠가 살아계실 때 쓰던 그 가방을 집어 들고 여우 가면과 이 물건들을 하나씩 챙겨 넣은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엄마는 한창 바라 브리스 빵을 굽느라 분주하다. “얼른 밖으로 나가보렴, 이렇게 밝은 날에는 나가야 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나가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데이비는 조금 전에 챙긴 가방을 어깨에 맨다. 엄마는 방금 구운 따끈한 빵에 버터와 치즈를 넣어 가방 안에 넣어주고, 열심히 돌아다니라고 다시 한 번 응원한다.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는 한 소년이 대문 밖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딱 하루 동안 그가 발길 닿는 대로, 혹은 누군가의 제안이나 요청으로 방문하는 다양한 장소를 그대로 따라간다. 화창한 여름 날, 느긋한 산책인 줄 알았던 데이비의 외출은 꼬맹이 시절 발을 전다는 이유로 무서워했던 윌프라는 아저씨와 만나 셋노란 풍선껌을 건네 받을 때만해도 평온했으나, 금세 미스터리한 분위기로 바뀐다. 같은 학교 친구, 고쉬가 어디선가 나타나 시체를 발견했다고 말한 것이다. 심지어 죽은 사람은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동네 친구, 지미 킬렌이라고 했다. 고쉬의 손에 이끌려 반쯤은 억지로 사건 현장으로 간 데이비는 낡은 교회당 한쪽, 돌무더기가 쌓인 곳에 삐죽 튀어나온 지미 킬렌의 청바지와 신발, 초록색 티셔츠를 단번에 알아본다. 대체 누가 저지른 짓일까? 불과 몇 주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바로 그 교회에서 진행된 장례식의 풍경이 생생한 데이비의 머릿속에는 현실과 상상, 혹은 옛 기억이 마구 뒤엉키기 시작한다.

데이비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는 모든 것들은 시적이면서도 너무나 사실적인 표현들로 상세히 묘사된다. 글을 읽는 것만으로 데이비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생생한 묘사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호기심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지미

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고쉬는 조로 크레이그가 저지른 살인이라 단언한다. 킬렌 집안과 크레이그 집안은 수십 년 전부터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양속 중의 양속이었다. 데이비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두 집안의 극심한 갈등에 대해 자주 들었는데, 대체 왜 그렇게 서로를 증오하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고쉬는 지미와 조로가 네 살 때부터 서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았고 며칠 전에도 ‘무덤에 파묻어 버리겠다’며 협박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데이비를 놀라게 한 건 죽은 지미의 곁에 떨어진 칼이었다. 예쁜 초록색 티셔츠를 온통 피로 물들인 그 살인 흉기는 대체 누가, 어떻게 준비한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신이 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를 볼 자신이 없어 포기했던 데이비는 태어나 처음으로 지미의 시체를 본다. 정말 집안끼리의 싸움 때문에 아직 앞날이 창창한 이 어린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했을까? 데이비가 사는 잉글랜드 북부, 타인 강 유역 마을인 타인 사이드에 살고 매일 얼굴을 맞대는 이웃 중 누군가가 한 짓은 아닐까? 뜻밖의 살인 사건에 먼 뉴캐슬에서 온 수사팀이 배치되고, 데이비는 다시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한다.

“어서 어른이 되어 여자와 대화도 나누고 사내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하다가도 “지금보다 어릴 때는 바보 같은 일에도 고향치면서 깔깔 웃었지”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데이비는 아버지의 죽음과 이웃들끼리 살림살이까지 다 알 정도로 좁은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지 조용히 고민한다. 목적지 없는 긴 산책 혹은 짝막한 하룻동안의 여행에서 만난 개성 넘치는 기억 사람들도 각자의 고민과 생각, 경험을 데이비에게 이야기하고 그럴수록 죽음은 더욱 강렬하게 데이비의 생각을 사로 잡는다. 전쟁, 누군가를 향한 극도의 증오심, 늘 똑같이 느껴지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그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이 데이비가 접하는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묘사된다.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서 두 건의 죽음을 겪는 데이비는 누군가 죽음에 대해 아무 것도 숨김없이 다 얘기해주길 바라면서도 죽음을 모든 것이 끝나는 종결의 의미보다는 뭔가 신비하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현상으로 간직하고픈 상반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고 단조로운 듯 하면서도 다양한 사건이 이어지는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저자 소개>

데이빗 아몬드(David Almond)는 소설가이자 그림책 작가, 작곡가, 연주자, 오페라 작가로 활동해 왔다. 『Skellig』, 『My Name is Mina』, 『Counting Stars』, 『The Savage, Island』, 『A Song for Ella Grey』 등의 소설이 전 세계 40개 언어로 번역됐다. 카네기 메달, 휘트브레드 상, 가디언 아동 소설 상 등 주요 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다. 2010년에는 아동문학 분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상으로 꼽히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했다. 현재 배스 스파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교수로도 일하고 있다.